

##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과 변천

정 경 희\* · 유 태 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 The Origination and Changes of Street Fashion

Jung, Kyong Hee\* and Yoo, Tai Soon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MA.,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fashion phenomenon by considering the types of street fashion, the center of avant-grade modern fashion, that shows the origination background and special feature concretely.

The times was defined through the 1980's from World War II that street style originated, so the range of study was the 1990's when the street style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past and was revived. The ways of study were to analyze the records of ideology, art and music connected with the street style from World War II to the present when it has risen.

The summary of result is as follows.

(1) In the 1940's, Zooties was the jet of desire suppressed by African-Americans that couldn't receive favors socially and economically and Hipsters pursued reformative bebop that made up of soft Jazz. In the 1950's, Modernists were running after Cool Jazz to the minimum. In the 1970's, Funk appered in the sexual desire and erotic strength, and was surfaced from Negro Getto. In the 1980's B-boys & Flygirls showed the street style by the scribble art of slum in the New York.

As mentioned above, in the 1990's, Acid Jazz influenced by the Jazz of Negro has been the fashion added to the tradition of musical form that come from eclecticism of Jazz tended Neo-Jazz.

(2) In the 1940's, Western style dreamed the country life because of rapid urbanization. In the 1950's, Beat obtained the feeling of liberation from the dissolute life and activity. In the 1960's, Psychedelics showed the freedom affected by the Pop-art and Op-art, and Hippies pursued the true individuality as 'love & peace' life style and the return to nature. In the 1990's, Grunge look influenced by the above has been fashion that shows the practical use of second-hand clothing or patchwork contrary to elitism.

(3) In the 1940's, Caribbean style appered in the typical textile color with the center of West Indies. In the 1960's, Rude boys showed the magnificence and difficulty of Jamaica, and Rastafarians had a tendency to come back to the ancient civilization of America. In the 1970's, Two-tone was the simple clothing for harmonizing among human races. In the 1990's, Jamaica look influenced by the above has been the Lege fashion introduced to a high fashion, appearing in the special bright color, applique, unique hair style, and so on.

(4) In the 1950's, Sufers pursued natural rhythm, getting out of everything. In the 1970's, Skaters enjoyed the speed on the paved road. In the 1980's, Casuals emphasized the spirit of cooperation of young-

things. In the 1990's, Casual look influenced by the above has been the fashion that forms the activity, function and strong spirit of cooperation by pursuing comfortable life and sports in the tension of life and variety of modern society.

(5) It was hard for Bikers to adjust themselves in society after the war. In the 1950's, Coffee bar cow-boys were the reckless running boys in the leather jacket. In the 1960's, Rockers created the group originality as disobedient outsiders and Greasers imitated Rolling Stones. In the 1980's, Punks resisted the viewpoint of the old generation in offensive fashion. In the 1990's, Cyberpunk influenced by the above has pursued the classless structure, electronic music and metallic clothing that forebodes gloomily as the computer generation of ultra-modern science times.

Accordingly, in understanding a complex modern fashion phenomenon, it was analyzed that the street styles of the past, from World War II to the 1980's, were reflected in that of the 1990's dividing into the five types in a word, namely Acid Jazz, Grunge look, Jamaica look, Casual look and Cyberpunk.

## I. 서 론

21세기를 앞두고 인류의 문화는 그 어느 세기보다 창의적인 감각과 열정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의 추구 및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 즉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반산업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는 새로운 문명의 창조와 더불어 의식구조를 변혁시키고 있다. 다종다양하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마이콤 기술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탈 획일화의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적 특징인 규격화, 동시화, 중앙집권화는 다른 개성의 존중, 다양화 등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sup>1)</sup>

급속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개인은 신념과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문화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문화적 탈구, 부조화 현상, 모순 등 지금까지의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패션에서도 나타났다. 현대패션은 더 이상 모드의 진원지인 파리의 소수창작자들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패션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젊은이들의 의상과 창작방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대중화된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이 하이패션(high fashion)으로 수용되어 대중화되고 있다.

Baudleire<sup>2)</sup>는 “예술가들은 현재를 표현할 때 과거를 사용하곤 한다”라고 말하였다. 즉 실제로 많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은 과거를 재구성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이 특히 1990년대 패션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스트리트

가 형성된 전후 194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아 재창조된 다양한 패션이 공존하였다.

많은 복식 학자들은 패션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와 관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Hamilton<sup>3)</sup>은 “복식이란 문화의 하위체계(cultured sub-system)로서 특정한 문화를 명시함에 있어서는 독특하지만 문화를 표현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White의 이론을 인용하여 복식의 문화적 하위요소를 기술, 사회구조, 이데올로기로 제시하였다. 즉 기술의 발달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사회구조가 변하면 이데올로기가 바뀌어 각각의 요소들이 영향을 준다<sup>4)</sup>고 하였다. 또한 김민자,<sup>5,6)</sup> 엄소희,<sup>7)</sup> 서유리,<sup>8)</sup> 나채희<sup>9)</sup> 등은 복식을 통해 그들의 상징적 의미를 투시하였던 Teddy Boy, Mods, Hippies, Punk Fashion, New Wave Fashion 등의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따라서 하위문화적 현상중의 하나인 스트리트 스타일이 패션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 복고현상으로 현재의 패션에 반영됨을 분석하는 것은 패션에 미친 중요한 영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극도로 복잡해지는 패션현상을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스트리트 패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발생 배경을 사회적, 예술적인 배경으로 고찰하고, 둘째, 발생배경의 한 요인으로써 1940년대에서 1980년까지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시대적 생성을 분석 파악하며 셋째, 현재의 유행을 분석하여 스트리트 패션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 II. 스트리트 패션의 발생배경

### 1. 사회적 배경

스트리트 스타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의 미국에서였다.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대중 사회의 변모는 미국중심으로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중산층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성인과 다른 독자적인 가치관을 지닌 틴에이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의 젊은이들은 레코드 구입과 영화관람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새로운 소비자가 대중 속에 편입되게 됨으로서, 이른바 청소년 문화가 기성 문화와는 다른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주문화와는 구분되는 하위문화의 표현방법을 추구할 때 사회적 국외자(outsider)나 소수인종(흑인이나 남미 아메리칸등), 하층계급의 음악이나 문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의 미국이나 전후 복구를 마친 유럽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주문화의 여전한 기득권적 세력 유지 속에서도 젊은 세대(young generation)를 중심으로 한 반항적인 하위문화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대중사회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기존 사회로부터의 도피나 보다 의미 있는 삶에의 추구를 위한 도구로 도피주의적인 이상주의, 히피 또는 플라워 파워 등으로 삶의 방법을 자연에서 찾았고, LSD 등의 마약 문화로 인간의식의 확대를 시도하였다. 한편 여성 해방운동이 제기되어 여성들이 그들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 터부시 하였던 성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해방된 육체의 자유를 만끽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sup>10)</sup> 남성은 긴 머리에 화려한 옷과 악세사리를 걸치고, 여성은 굳이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남으로써 결국 남녀가 동일한 머리스타일과 의복을 공유하는 유니섹스 모드로 변화하였다. 한편 또 다른 젊은 세대가 아방가르드한 패션의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특히 영국에서 두드러졌다. 그들은 파격적인 펑크패션과 전위적인 엔드로지니어스 룩 등의 스트리트 패션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패션 흐름은 런던의 킹스 로드를 중심으로 하여 뉴욕의 이

스트 빌리지, 동경 등의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퍼졌다.

1980년대의 막이 열리면서 여가를 선용하는 풍조가 만들어지고 패션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질적인 추구하고 용도의 다양화, 개성화를 요구하였고 클래식과 전위적인 의상의 상반된 요소가 공존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패션의 혼존현상은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으로 대변되는 주도적인 주문화의 일방적인 지배가 아닌 다양한 하위문화의 혼재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속화되었고 여기에서 다양한 시대를 뛰어넘는 스트리트 패션의 상호공존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 2. 예술적 배경

#### 1) 미술

회화는 마네 이후로 점차 더 평면화되었고 자체의 유일무이한 기본특성을 기본요소로 삼는 예술행위로 진행해 왔다고 보아서 문학적 요소인 설명적인 내용이 배제된 2차원적인 것을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다.<sup>11)</sup> 시대적인 모더니티의 전제를 탐구한 큐비즘4(Cubism), 미래주의(Futurism), 다다(Dada), 구성주의(Constructivism) 등을 모더니즘 미술로 정의해 보려는 시도도 있었고, 또한 팝아트(Pop art)와 옵아트(Op art)는 감각적인 것에서 시각적인 효과에 호소하는 새로운 회화로 등장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를 풍미했던 또다른 예술로 미니멀리즘(Minimalism), 움직이는 예술로 알려진 키네틱 아트(Kinetic art), 반형식적·반지식적인 전통가치관의 파괴형태로 나타난 펑크 아트(Punk art) 등이 새로운 미술로 나타났다. 기존 사회로부터 도피적 수단으로 마약문화와 대체사회의 장식미술 양식은 싸이키델릭(Psychedelic)이라고 불리웠는데 싸이키델릭한 스타일은 아르누보(Art Nouveau)를 적용한 것이었다.

1970년대의 디자인에는 시골풍도 하이테크도 아닌 키치(Kitsh;《독일》저속하고 품위없는 작품)가 나타났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양상을 보인 중요한 미술이다. 미술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각종 리바이벌의 붐이 일어난 Neo-의 시대인 1980년대 말부터를 포스

트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부른다. 1985년 후반부터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구성주의 혹은 후기 구성주의 이론이 잘 조화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 2) 음 악

대중음악은 세대, 장소, 그리고 인생관에 의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젊은이들은 소수인종(흑인)과 하층계급의 음악을 선택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재즈와 리듬 앤 블루스가 1940년대 초 미국 음악산업계에 등장하였다. 반면 대중음악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리 앤 웨스턴은 미국 남부백인 사회에서 생겨났다.

전후에는 새로운 재즈 스타일인 비밥(Bibop)이 세련된 흑인 보컬 그룹들에 의해 탄생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의 진정한 음악은 로큰롤(Rock' n' roll)이었다. 젊은이들은 팝스타를 모방함으로써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과 함께 새로운 정신과 문화가 나타났음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아방가르드한 세대는 파격적으로 스트리트 패션을 창조하였으며,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0년대 중반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사이키델릭록이 나타났는데 다른 형태로 영국에서는 하드록, 글램록(Glam rock) 등을 통해 새로운 음악실험을 거듭하고 있었다. 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디스코(disco)가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반면 영국에서는 펑크록이 나타나 그 영향으로 본격적인 뉴 웨이브(New Wave)시대가 도래하였다.

1980년대는 매체의 영향으로 뮤직비디오와 MTV의 성장으로 슈퍼스타가 부활하였으며 미국 흑인 음악과 레게(rege)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의 팝, 민속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또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인 랩이 등장해 독자적으로 자리를 굳혔다.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스트리트 패션은 거리의 젊은이들이 그 시대의 음악을 선호하여, 스타의 패션을 모방하면서 형성하였다.

### Ⅲ. 스트리트 패션의 변천

젊은이들은 1940년대 할렘 스트리트(Harlem

Street), 파리의 상제르망(Saint German), 1950년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 1960년대 런던 카나비 스트리트(Canaby Street)와 킹스로드(King's Road), 자마이카의 다운타운, 1970년대 샌프란시스코 하이트 애쉬베리(Haight Ashbury)와 캘리포니아의 라 줄라 비치(La Jolla Beach), 1980년대 런던 브롱크스(Bronxs), 1990년대 런던 소호(Soho)를 중심으로 그 시대, 그 장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어느 곳에도 가지 않으면서 스트리트를 방황하였다. 그들의 의복, 머리 스타일, 메이크업, 악세사리는 하류생활을 반영한다. 50, 60년대 패션의 전성기에는 트렌드를 결정하는 독특한 룩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다. Modern Times에서 Peter York는 "패션은 50년대 60년대 전성기에 와서 확립되었고 모든 사람이 추종하는 라인을 결정하는 집권자이다"라고 하였다.<sup>12)</sup>

그러나 오늘날의 패션은 포스트 모던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것이 필수적으로 유행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일어나고 있다. 의복과 악세사리의 디자인 영역에서 시간을 초월한 클래식이 대중성을 얻었다. 또한 트렌드 내에서의 불협화음을 감소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새로운 룩을 제시하는 디자이너에 의해 오늘날 더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으며 스트리트의 스타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톱 디자이너의 컬렉션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상의 발생배경의 한 요인으로써 4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스트리트 스타일의 시대적 생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1940년대

흑인계 미국인들은 그들 자신들의 저항 스타일을 창조하였는데 20세기초의 세계와 역행하는 그들만의 패션 중심가, 할렘의 팡창으로 패셔너블한 옷의 과장된 변형이 나왔다. 1940년대 도시 흑인 청소년들은 매우 분명한 스타일로 발전시켰다. 주티스(Zooties)는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빈곤과 미국 도시생활에서의 자기 소외에 대항한 사회적 반란을 의미하는 값비싼 소재와 사치스런 악세사리의 과장된 주트 슈트를 입었는데 이것은 상향 지향적인 것이었다. 어깨는 각지고 허리에서 꼭 맞으면서 무릎 바지의 폭은

30인치이고 바지부리에서 12인치로 좁혀지는 스카이 블루 팬츠(ski-blue pants), 테두리된 중절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무릎 부분에는 모고 발부분은 벌리며 두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sup>13)</sup>

1941년 뉴욕 잡지는 슈트 슈트가 재즈의 영향을 받아 기본 남성패션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이리하여 세계와 역행하는 그들만의 패션 중심가, 할렘에서 남성패션의 부활을 예측하였다.

한편 쿠바 혁명 이전의 하바나는 토착 음악뿐만 아니라 재즈 음악도 제공하였는데 미국 음악인(대부분 흑인)의 끊임없는 이주를 야기시켰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할렘, 시카고, 뉴올리언스와 마이애미에서 유행이던 슈트 슈트의 변형이나 다른 걸치장이 번지르르한 스타일과 전형적인 섬유색상의 현란한 옷들을 입고 있었다. 이들의 미국으로의 이주로 인해 할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으며 이 카리비안 스타일(Caribbean style)은 영국 스트리트 패션에 영감을 주었다.

반면 웨스턴 스타일(Western style)은 사실상 미국인들의 꿈 그 자체였다. 서부 개척 시대의 웨스턴 스타일은 미국의 신화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일면에서 카우보이의 의상은 부츠, 스테트슨(stetson)모자, 자수된 자켓, 부트레이스(bootlace)타이 등은 초기에는 미국 남서부에 국한되었으나 곧 전역으로 확산된 하위문화적 스트리트 스타일이 되었다. 컨트리 앤 웨스턴 음악인들은 웨스턴 스타일을 상향지향적인 스타일로 추구하기도 하였다.

음악적 경향이 바뀌면 의복 스타일도 변한다. 전후 비밥이라는 혁신적인 음악이 할렘에서 대두되었는데, 이 음악인들은 슈트 슈트와 비교되는 검정색의 더블 장식된 슈트, 스카프, 베레모, 턱수염, 독특한 머리 장식 등의 스타일로 오늘날의 기본 정장으로 확장되었다. 찰리 파커와 몬크, 질레스피는 매체에 의해 혁신자로 일컬어졌고 그들의 스타일은 모든이에게 모방되어져 그들의 스타일은 '힙스터(Hipsters)'로 알려졌다. 이 힙스터는 기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거부현상으로<sup>14)</sup> 1940년대 말과 1950년대의 하위문화로 규정되었고 보급되었다.

## 2. 1950년대

50년대 초를 거치면서 그리니치 빌리지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든 작가와 시인들을 중심으로 비트(Beat) 세대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미국생활의 단조로움과 순응주의, 미국정치의 무의미, 대중문화의 진부함에 대해 비평하였으며 평화와 마약, 섹스, 신비주의 등을 지향했다. 엷은 색의 구겨진 작업바지, 진바지 등의 평범한 스타일은 대학생의 전형적인 미를 제시하였고 재즈, 마약, 자유 방랑적인 열정에 영향을 받아 공개적으로 나르시즘에서 멋을 내는 그 자체의 스타일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다. 이러한 비트족의 소극적이고 도피적인 경향은 1960년대에 나타난 히피문화의 전조로 남게 되었다.

전후 런던의 고급 양복점들은 영국상류계층 남성복 형태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에드워드안으로 알려진 플랑보양식의 남성복을 생산하였다. 런던의 노동자계층과 젊은이들은 이러한 상류계층의 에드워드풍으로 인해 괴리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에드워드풍과 미국의 슈트 슈트와 카우보이의 낮은 타이를 첨가한 스타일로서 상류문화에 대한 반항을 풍자적으로 표현하여 사회적 야망을 전달하려 하였다. 이는 분명히 상향전파였다. 그들의 스타일은 무릎까지 내려온 자켓에 새하얀 포플린 셔츠, 장식적인 베스트, 복사뼈에 맞는 팬츠에 검은 가죽구두, 가느다란 보우타이, 벨벳칼라로서 10대 소비자라는 젊은이들의 꿈을 전면에 내세웠다.<sup>15)</sup> 50년대, 60년대로 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젊은이들 즉 비행청소년들은 테디 보이즈(Teedy boys)로 분류되어졌다.

1940년대말 비밥 내부에서 'cool'이라는 음악이 나타났는데 모던으로서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모던은 최소화를 추구하는데 이 모더니스트(Modernists)의 스타일은 슈트슈트와는 달리 모든 화려함을 줄이고 더욱 슬림하고 정돈된 스타일로 나타났다. 셔츠칼라도 화려함이 감소되고 아이비리그 스타일의 버튼이 아래인 형이 되었다.<sup>16)</sup>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넥타이는 얇고 날카로운 선으로 아래부분에 포인트는 없으나 사각으로 잘려지고 밑에서부터 3/4점에 넥타이 핀으로 고정시켰다.

비트족과 마찬가지로 포키스(Folkies)는 1950년대 북아메리카와 북유럽을 특징하는 소비사회와 규격화되는 것에 대한 반항으로 나타났다. 비트가 모던 재즈에 기반을 둔 반면 포키는 농촌의 전통음악인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어 순수하고 진정한 시골생활을 열망하는 인간의 영혼을 찬양하는 낙천주의였다. 이러한 스타일은 밝은 칼라와 장식으로 자연스런 소재와 칼라를 강조하는 자수로서 전원생활을 나타내었고, 코오듀로이 바지나 자켓, 꽃무늬 프린트의 스커트나 블라우스를 착용하였다. 또한 이것은 10년후 민속적 정신이 가미된 꽃무늬로 히피 스타일에 종종 장식되었다.

로커빌리(Rockabilies)는 1945년 엘비스 프레슬리에 의해 유래되었는데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의 결합을 이룬 것이었다. 로커빌리의 융화적 성격은 인종과 종교, 종족, 세대간의 벽이 10대 음악에서 새로운 혁명으로 나타났다. 스타일의 구체적인 형상은 화이트와 파스텔의 소재와 자유로운 장식, 즉 다이아몬드 형태의 디자인, 자수, 스티치, 자켓의 라펠위로 내어 입는 넓은 셔츠칼라와 위에는 넓고 발목 부분에서 줄어드는 페기바지, 흰색이나 대조적인 두 가지 톤의 스웨이드 구두로 나타났다.

50년대 초반에는 단순하고 캐주얼한 디자인의 이태리 라인이 대중적으로 형성, 발전하였다. 이태리 스타일은 새로운 국제적인 경향이 되었다.<sup>17)</sup> 전후의 이태리와 관련된 특별한 스타일의 옷은 단정하고 짧은 자켓과 장식, 부리가 좁은 바지는 편하고 태평스런 생활에의 접근을 나타내었다. 그것은 전후 두드러진 특징인 '레저 세대'에 대한 접근을 나타내었다. 이 모든 것이 영화 'La dolce vita'에 잘 나타나 있다. 에스프레소와 말쑥한 이태리남성복의 현대적인 라인은 전쟁후 다시 일어나는 유럽대륙을 상징하고 서구 미래의 발전을 제시하였다.

반면 커피-바 카우 보이들(Coffee-bar cow-boys)은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자신의 오토바이를 자랑하고 즉흥적인 경주에 도전하기도 하였다. 이 바이커 스타일은 하위문화가 영국에서 완전히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생긴 톤-업보이들(Ton-up boys)은 영화 와일드 원이 이들 의상에 영감을 주었다. 이들의 Perfecto스타

일의 가죽 자켓과 함께 진과 부츠도 높이 평가되었다. 거기에 손으로 짠 스웨터와 진, 짧은 부츠위에 두껍고 흰 양말, 흰 실크 스카프로 장식했다. 이 모습은 50년대 중반의 대변혁적인 모습이었다.

바이커와 톤-업 보이들과 같이 서퍼(Surfers)는 스포츠를 즐기고 그것으로 인해 생활방식이 바뀌었다. 파도를 타며 한가롭고 평온한 생활을 하는 그들은 적절하게 느슨하고 캐주얼한 스타일로서 활동적인 스타 라이프 무늬와 색상의 슬래쉬를 넣기도 하였다. 그들은 존 앤 딘과 비치보이스 등과 같은 태평스럽고 쾌락적인 팝음악에 영향을 받았다.<sup>18)</sup>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불안이 만연한 사회의식에 대한 반발로서 하나의 도피적 수단이었다.

### 3. 196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하류층 노동자계급의 심대들은 모던 재즈와 록큰롤과 같은 미국의 대중문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모즈(Mods)로 불린 그들의 특징은 부분적으로 염색한 짧게 깎은 머리, 흰색 이태리식 니트, 라운드 칼라 셔츠, 정교한 짧은 로마식 자켓, 통이 좁은 바지, 끝이 뾰족한 구두, 솔기 없는 스타킹, 마스크라를 듬뿍 칠하고 얇은 자주색의 시체와 같은 메이크업 등으로 장식한<sup>19)</sup> 이러한 외모는 전통적인 성의 혼돈을 일으켰다. 초기에는 테디보이 스타일을 흉내내었으나 후에 뉴욕의 범죄 영화에서 묘사되었던 포크파이모자, 검은색 선글라스를 애용하였다.<sup>20)</sup>

록커(Rockers)의 거친 이미지와 모즈의 부드러운 록간의 대조는 변화하는 남성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록커들은 저돌적인 태도와 반항적인 아웃사이더로서 그들의 위치를 공포하였다. 그들은 장식을 강조하는 상징을 그렸으며 메탈징을 박았고 특유한 문장이 더욱 더 명백한 집단 독자성을 창조하였다. 록커들의 시각적인 모습인 징, 상징그림, 체인과 뾰족한 구두는 록큰롤의 활기찬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자마이카는 1962년 독립을 쟁취하면서 문화적인 고유성을 고안하기 시작하였으며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루디 블루스로 알려진 고유의 음악을 창조하였고 의상 스타일의 변화도 있었다. 킹스턴의 루디 보이(Rude boys)들은 까까머리, 슬림팬

츠, 싸구려 양가죽 자켓, 짙은 선글라스와 헤어컷으로 밤을 지배하는 복장을 하고 선택적 여분으로 포크파이 모자를 착용하였다.<sup>21)</sup> 루디 보이룩은 70년대에 투-톤(Two-tone)이라는 형태로 재현되었다. 투-톤은 같은 시기의 뉴 로맨틱의 지나친 장식에 비해 참신하고 날렵한 옷차림을 제시하였다. 서인도 제도의 루디 보이스타일과 음악은 멀리 영국에 영향을 미쳐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영국이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 되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영국 젊은이에게 집중되는 세상의 이목은 대중음악과 영화산업을 위한 변함없는 유희의 징후가 카나비 스트리트에서 나타났다. 영국은 진부하고 시대에 뒤졌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났으며, 활기찬 런던(Swinging London)은 열광적인 비틀즈의 열풍과 롤링 스톤, Chelsea부티크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특히 앤디 워홀의 현대 미술의 양식과 옴 아티스트 Bridget Riley의 유니온 잭에서 색과 무늬의 불협화음 장식을 하였다. 번쩍이는 단추와 전통적인 군복과 밴드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장식 매듭이 뒤섞여진 이 모든 것은 모더니스트의 미학이론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카나비 스트리트의 중고 판매대에서는 어떤 주제나 경향을 확인하기란 어렵게 되었고, 또 런던이 당시 세상에 제공한 룩의 무수한 컬렉션의 이름을 찾기란 더 힘들게 되었다. 이에 따른 수많은 별칭을 사이키델릭(Psychedelics)이라 하였다. 팝/옴 아트와 디자인이 모두 소용돌이 쳤고 부조화의 색과 화려하고 번쩍이는 장식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사이키델릭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전파되었는데 미국에서의 이 사이키델릭 혁명과 히피의 '플라워 파워'는 하나의 같은 맥락이다.

샌프란시스코 하이트 에쉬베리를 중심으로 비트족, 포크송 가수, 서퍼나 사이키델릭과 베이비붐 시대의 도래로 새로운 하위문화집단이 퍼져나갔다. 사회로부터 밀려나 악물을 복용하던 사람들은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무정부주의를 주장하였고 성적 터부의 많은 부분을 깨트림으로서 성에 대한 언급의 자유를 확대시켰다.<sup>22)</sup> 대중매체가 긴머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히피라고 이름을 붙인 데서 기인하는 히피(Hippies)는 자연과 사랑에 대한 도취의 상징으로 긴머리와 드레이프가

있는 드레스를 착용하였으며, 가끔은 나체로 질주하여 충격적인 시선을 끌기도 하였다. 그들의 스타일은 천연소재로 만든 수제품 외투와 에스닉한 아프간 코트, 칼라풀하게 수놓은 머리띠, 긴머리에 구렛나루를 기르고 챙이 넓은 카우보이 모자, 두꺼운 망토, 데님이나 진에 화려하게 수를 놓은 디자인으로 장식하였다.<sup>23)</sup>

1965년 캘리포니아 홀리스터의 폭동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세대의 그레이저(Greasers)라는 오토바이족들은 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그들의 방식은 특이한 장식이 과다하고 저속하였다. 닳아빠져서 반짝이고 기름이 묻어 흠뻑 젖은 듯한 청바지를 입고 긴 머리카락은 2차 대전때 썼던 주석 헬멧이나 가죽모자로 곳곳이 세워 덮었다. 또 소매를 없애거나 아랫부분을 찢은 가죽자켓을 즐겨 입었다.

1960년대 말 모즈 스타일의 일부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형하기 시작하였다. 머리를 짧게 깎고 진바지를 접어 올리고 끈을 맨 부츠에 체크무늬와 남방을 입거나 블루중 스타일의 자켓을 입은 스타일로 주로 무산 계층의 자녀들이 선호하기 시작하였다.<sup>24)</sup> 이 스킨헤드(Skinheads)의 내외적인 스타일은 종래 청소년 하위문화가 추구한 쾌락, 향락주의에 반대하였다. 대부분이 계급의 차별화 강화를 신조로 한 스타일을 신봉하였는데, 찢어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는 옷, 여성스럽게 보이지 않고 비싸지 않은 옷을 선호하였으며, 초기에는 녹색 군복 바지, 앞부분에 금속장식이 붙은 업무용 부츠, 두드러지는 서스펜더를 착용하였다.<sup>25)</sup>

한편 펑크(Punk)는 미국 흑인이 전하는 강렬한 느낌의 흑인 음악에 영향받아 복장과 꾸미는 장식 스타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 초기 흑인 빈민가인 흑인 게토에서 표면화되었다. 펑크는 눈에 띄게 야한 것으로 악센트를 두는 스타일의 옷에서 성적 매력을 나타내었는데 바지의 허벅지 부분이 딱 붙고, 바지 부리는 부풀어져 있으며, 팽창되었으며 비싼 스웨이드와 뱀가죽으로 장식하였다. 모자 밴드에 금속체인을 둘러고, 비글 칼라의 셔츠에 엘리펀트형 커프스로 마무리하였다.<sup>26)</sup>

#### 4. 1970년대

맥 보랜과 데이비드 보위를 선두주자로 하는 글램(Glam) 룩은 히피스타일에 대한 반발로서 우주의 새로

운 가능성을 개발하는 미의식을 추구하였다. 그들은 현란한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진동하는 듯한 메이크업으로 양성적인 스타일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클럽의 실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있다.<sup>27)</sup>

1930년대 자마йка에서 시작된 라스파라인(Rastafarian)운동은 자연적인 조화의 재발견을 강조하는 생활방식을 선택하였다. 1970년대 초반까지 서부 인디언의 상당수는 벨트, 모자, 견장, 훈장, 스카프와 손목의 끈 등을 착용했고 이디오피아 국가의 붉은 색, 금색, 녹색의 티셔츠를 입음으로서 라스파라인식 믿음을 나타내었다. 또 자연섬유로 만든 의복과 독특한 끈머리 모양으로 장식하였고 자마йка 레게 음악인들의 국제적인 성공으로 이 스타일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1960년대 젊은 문화는 점점 반항적인 반문화적 경향을 띄게 되었다. 1968년 팝 그룹 스테판 울프에 의해 헤비메탈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헤비 메탈은 스타일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히피와 록문화에 기대하지 않는 결합으로 빠르게 획득되었다.<sup>28)</sup> 의복 스타일에 있어서는 히피와 록커 스타일사이에서 놀랄 만큼 잘 조화된 것으로 낡은 데넬에 히피의 긴 머리를 하고 록커들의 가죽자켓에 장식을 대었다. 또한 헤비 메탈 패션은 펑크패션에서 많은 패션요소를 도입했는데, 장식못이나 금속조각으로 가죽자켓을 장식하고 꼭 맞는 가죽바지나 진즈를 찢거나 구멍을 내서 입었다.<sup>29)</sup> 헤비메탈은 음악 뿐 아니라 그룹을 묘사하는 집단 명칭으로 이것을 헤드 뱅걸스(Headbangers)라고 하였다. 오늘날 패션에서 스파택스, 진, 가죽, 뱀피, 표범문양의 악세사리는 이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있다.

스케이트보드는 1970년대 초기 국제적으로 열광되었다. 스케이터(Skaters)의 의복 스타일은 서퍼와 차이가 없었는데 두 집단 모두 여분이 많은 넓고, 밝은 배기 팬츠, 기발한 그래픽의 티셔츠를 입었다. 70년대 후반 펑크의 영향으로 미국의 스케이터 펑크는 고무와 PVC로 된 의상을 착용했고, 영국에서는 두꺼운 울로 만든 셔츠와 검은색의 옷, 해변의 머리 스타일을 하였다.

1976년 런던의 킹스로드를 중심으로 히피가 남겨놓은 베이비 붐세대에 반대하는 충격적이고 요란스런

몸치장을 한 젊은이들의 혁명이 바로 펑크(Punks)이다. 검은 가죽 자켓을 선호하고 구멍 낸 티셔츠 위에 메시지를 프린트하였고<sup>30)</sup> 머리스타일은 모히칸 스타일로 빨강, 파랑 등의 여러 색상으로 염색하였으며 바디페인팅으로 장식하였다. 핀 플라스틱 옷걸이, 텔레비전 콤포넌트, 면도날 등의 아이템들이 펑크패션에 사용되었고 안전핀은 뺨, 귀 또는 입술에 장식되었다. 싸구려 원단에 저급한 디자인과 불결한 칼라로 재구성된 옷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현대성의 개념과 취향에 자기 의식적인 비평을 가한 것이었다.<sup>31)</sup>

## 5. 1980년대

뉴 로맨틱(New romantics)은 노스탤지어의 영향으로 부드러움, 사치스러운 옷감, 우아함, 화려한 옷 등의 이미지로 상향지향을 추구하는 반펑크족 의미로서 부상하였다.

그러나 그 반면에 고전적인 낭만주의가 화려함에서 벗어나 펑크, 클럽, 뉴 로맨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 결과가 고스(Goths)였다. 이들은 19세기의 고딕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검은 색의 풍만한 벨벳, 레이스, 그물모양의 천과 레이스 코르셋으로 장식된 주홍색이나 자주색의 가죽, 장갑, 위험한 스파이크 힐과 은으로 만든 보석 등으로 장식하였고 머리는 짙은 검정으로 염색하며 뒤로 넘겼으며 얼굴은 하얗게 팬케익 화장을 했고 눈과 입술은 피처럼 붉거나 검게 칠했다.

60년대말 스킨헤드가 대중에게 처음 나타난 곳은 축구장이었다. 그러나 70년대 말쯤에 매우 특이한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스타일은 라코스테, 버버리같이 눈에 띄는 고가품의 옷을 입음으로서 개인적 성공과 부를 나타내었다. 이 캐주얼족(Casuals)은 오랫동안 지연된 영국 남성복계에 혁명의 도래로서 유럽풍의 남성패션을 이끌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남자들이 나르시시즘의 기쁨을 제공하였다.<sup>32)</sup>

1950년대 유행을 앞서가는 런던에서는 가죽이나 PVC의 페티시즘적이거나 이상한 의상이 큰 매력을 끌었다. 말콤 맥라렌과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그들의 상징인 'SEX'를 개업할 때까지 지하조직으로 은밀하게 존재하였다. 거기에는 명백히 'pervy'란 아이템에서 영감을 얻어 페티시즘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시각적 비디오 혁명과 함께 남브롱크스에서는 랩이나 힙합의 표제 아래 젊은이 문화에 적합한 패션이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곡예적인 브레이크 댄스와 뉴욕 빈민가의 낙서예술에서 시작된 그들 자신들만의 의복 스타일이 발전되었다. 격렬한 춤동작을 고려한 운동 트레이너복과 운동선수의 보온복같은 B-boys와 Flygirls의 스타일은 영국에서 기인된 실용적인 캐주얼이지만 유명한 고급상표로 구성되어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두꺼운 금목걸이나 장신구를 하고 복잡하게 자른 짧은 헤어스타일로 마무리하였다.

#### IV. 199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

1990년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범세계화로 패션에 많은 영향을 가져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소득의 향상으로 컴퓨터 세대가 중산층으로 등장하게 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였다. 변화를 갈망하고 새로운 것을 쉽게 흡수하는 젊은 세대들은 '잃어버린 세대,' 'X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은 65년에서 7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로 미국의 심리학자 안켈로비치 박사는 이 새로운 세대의 특성을 탈질서, 반성실, 자연회귀 등 3가지로 집약했다.<sup>33)</sup> 이 신세대 패션의 특징은 스트리트 패션이 갖는 현장성과 부정형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 스트리트 패션이야말로 신세대들의 모든 패션 욕구의 통로로서 또 패션정보의 발산지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것을 쉽게 흡수하는 젊은 세대에서는 기성가치관에서 탈피, 감성의 해방으로 개성화와 쾌락주의, 소비 황금주의를 표방하면서, 패션에서는 노스탈직 경향으로 90년대에는 레트로 룩(retro-look)이 유행하고 있다. 레트로 룩은 단순히 옛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에 대한 향수로 옛 양식이 현재의 인간의 감성과 정서 그리고 시대상대에 어울리게 재정립됨으로써 새로운 양식을 탄생시키는 것이다.<sup>34)</sup> <표 1>은 4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스트리트 스타일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90년대 스트리트 패션을 분석한 것이다.

##### 1. Acid Jazz

네오 재즈적 경향으로 재즈의 절충에서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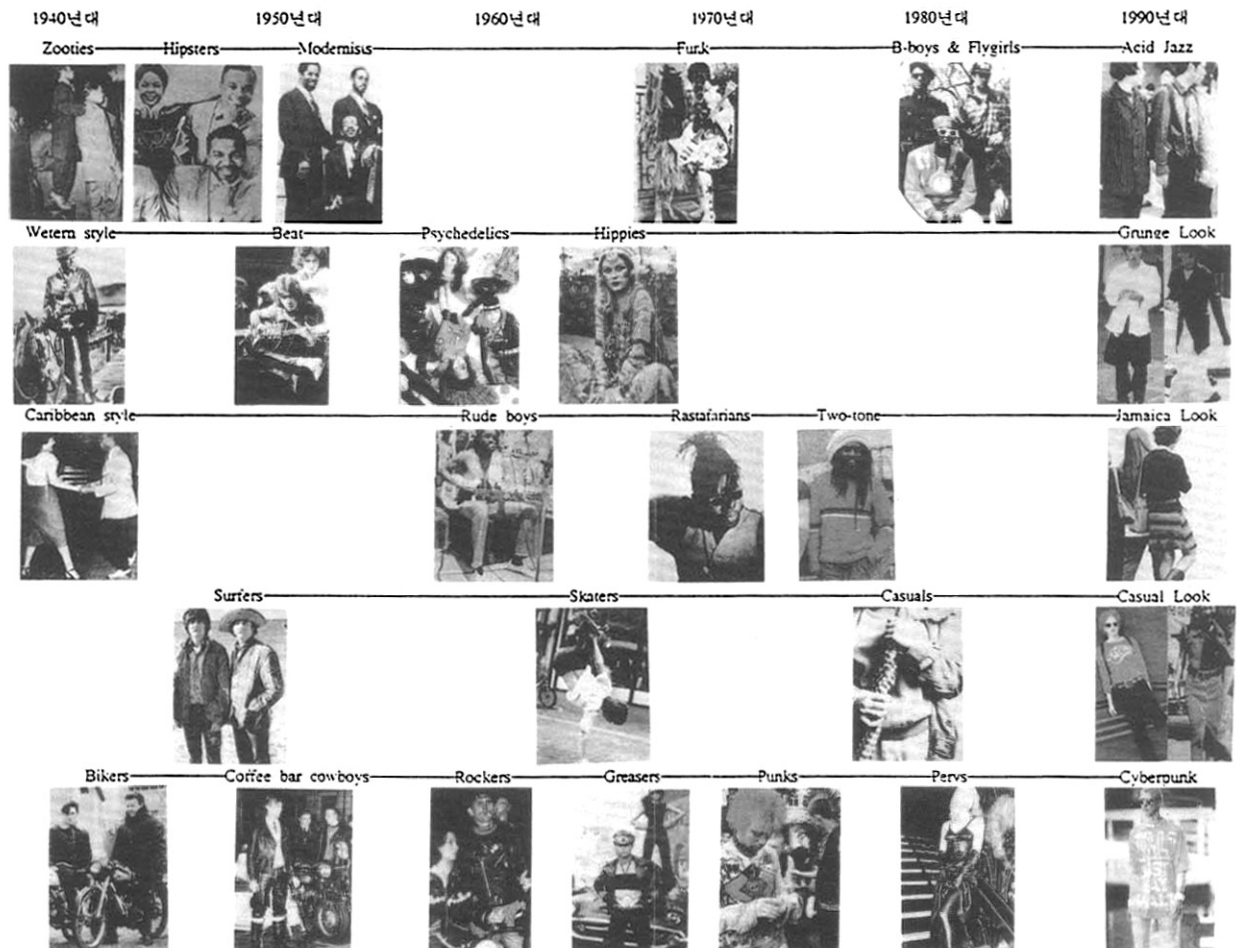
이것의 원동력은 1940년대, 1950년대말의 시험적인 재즈 스타일과 비밥 스타일을 고수하였고, 몇몇은 1970년대의 펑크를 고수했다. 다양한 스타일간의 상호보충은 단지 시대적인 문제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재즈의 다른 음악적 형식의 전통을 합친 도약이었다. 이러한 음악적 절충주의의 시류 속에서 발전된 의복 스타일은 재즈의 다양한 원천에서 기원된 것으로 베레모, 염소 수염, 말쑥한 차림의 슈트, 골덴과 구슬, 큰 검은 스웨터, 플래어된 넓은 칼라의 셔츠, 가짜 악어 가죽 로퍼, 체크 무늬, 가죽 또는 스웨이드로 된 웨이스트 코트를 착용했다. 그리고 재즈의 사운드에 영향을 받은 모드정신으로 수웨이드로 트리밍된 가비시(Gabiccini) 가디건같은 이태리 감각의 의복이 다시 부활했다. '95년 F/W 트렌드 중 과거지향의 노스텔지어인 재즈의 이미지에서 향수를 느끼는 구조와 균형이 잘 잡힌 실루엣이 부활하였다. 전통적인 남성복이 진보적인 스타일로 전개되며 과장과 장식을 배제한 엄격한 미니멀리즘이 기본이 되어 클래식하고 세련미가 느껴지는 브라운, 베이지, 블랙의 색상에 지오메트릭한 미니멀리즘 패턴의 소재, 남성스러운 이미지의 스트라이프로 심플한 이미지이다. 전반적으로 세이프한 구조적인 실루엣을 이루며 테일러드의 다양한 아이템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1940년대의 슈트나 1960년대의 스킨헤드처럼 단 한가지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절충적인 요소로서 개성과 음악적, 시각적 취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결코 단순한 리바이벌이 아닌 현실을 추구하는 독특한 스트리트 패션을 추구한 것이었다. 또 과거와 관련시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감각으로 이전의 재즈적인 스타일의 재현으로 새로운 패션을 창조하여 스트리트 패션의 미래를 묘사한다.

##### 2. Grunge Look

그런지 룩은 능력에 비해 열등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세대에 나타났다. X세대로 불리는 이 세대들은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베이비 붐 탕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대감을 그런지라는 새로운 문화로 표출하고 있다.<sup>35)</sup> 그런지는 세기말의 패션전환기를 향한 젊은 스트리트 패션의 하나이다. 스트리트는 신세대들에 의해 시작되어 하류층의

〈표 1〉 스트리트 스타일의 시대적 변화와 90년대 스트리트 패션



복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하이패션에 깊숙히 침투한 90년대 전반의 가장 획기적인 패션으로 자리잡았다. 그런지는 1980년대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뿌리는 도시적인 보헤미아니즘에 있다.<sup>36)</sup> 그런지 룩은 1993년 페리 엘리스(Perry Ellis)의 독특한 레이어드와 스포맥스(Sportmax)의 후줄근한 디자인등 미국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컬렉션에 도입,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런지룩의 특징은 레이어드와 투박한 울, 고급 벨벳, 비스코스와 같은 소재의 사용, 복고적인 꽃무늬, 럼버 잭 플레이드와 패치워크를 혼합시킨 패턴으로 나타났다.<sup>37)</sup> 60년대에 유행한 패치워크는 90년대 리바이벌 테마로 부상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스타일이 되었다. 또한 환경에 해가 없는 재료의 사용과 중고 의류의 재활용으로 에코로지적 표현을 나타내고, 해체주의 영향으로 데님 진을 찢어서 브리콜라(bricolage)쥬 기법을 재창조하였다.

### 3. Jamaica Look

90년대 남아공의 인종차별 폐지로 음악이나 스타일적인 대중문화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관념하에 레게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자마이카 민속음악인 레게는 1970년대에 밥 말리(Bob Marley)에 의해 대중화되었다가 90년대에 들어 새롭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음악의 유행은 레게 스타일이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내었는데 자마이카 특유의 밝은 색상과 데님 바탕에 고가의 소재로 아플리게나 패치워크로 장식하여 화려하였고 과시적인 이미지와 헤어스타일 등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수용되어 하이패션에 도입된 혁명적인 스타일이다. 자마이카 룩은 자마이카의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증명한다. 헐렁한 빅 사이즈 패션의 근원으로 레게음악으로부터 유래된 흑인 위주의 엑스라지(XL)사이즈의 헐렁한 패션이다. 지금은 흑인

뿐만 아니라 폭넓은 스타일로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sup>38)</sup>

#### 4. Casual Look

90년대초 미국의 경제불황과 환경 및 헬시라이프(healthylife)에 대한 관심은 포멀 웨어에 대한 약세와 함께 진이나 아웃도어 캐주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대 사회의 복잡, 다양화와 생활의 각박함은 여유 있는 생활의 레저웨어와 스포츠에 대한 욕구를 절실하게 하였다. 이러한 양상들이 특히 스포츠를 즐겨 하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캐주얼 웨어의 스트리트 패션을 이루고 있다. 흑인 가수 MC 헤머가 뮤직 비디오에서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옷을 입고 나온 것을 계기로 유행이 되어 1994년 디자이너 도나 카란이 자신의 브랜드 'DKNY'에서 절제되면서도 과감한 캐주얼 룩을 선보였다. 밝고 대단한 디자인, 강렬한 색상의 그래픽 티셔츠, 헐렁한 사이즈, 플레이어가 많은 데님진 등으로 활동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풍요로움과 전쟁을 모르는 시대의 삶을 살면서 지극히 원기발랄한 젊은이들은 소비그룹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진을 모티브로 한 스트리트 캐주얼 패션이 유행하고 있다.

#### 5. Cyberpunk

90년대에 등장한 하위문화 성향의 사이버 펑크는 첨단 커뮤니케이션에 심취한 무리를 일컫는데, 21세기 사이버 문화의 실현화를 피부로 느끼는 반사회적 경향을 띤 젊은이들의 집단으로 이들이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패션계에서 사이버를 반영한 사이버 펑크문화가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하였다.

스타일면에서 유연한 점퍼 웨이프와 각지고 구조적인 커팅, 그래픽한 트래밍, A라인의 실루엣 등이 보여졌으며 패딩된 파카, 메탈 피니싱, 다양하게 응용되는 지퍼 디테일, 스포티한 스트라이프가 부분 디테일로 적용되었다. 패션에서 사이버의 요소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소재로 광택있는 메탈릭과 실버 코팅한 직물들, 패딩한 합성직물, 투명한 비닐, 가죽 등 하드하고 매끄러운 표면의 직물들이 주류를 이룬다. 반방사적인 슈트와 마스크, 불길한 예감이 드는 금속성 느낌

의 도시 게릴라와 같은 의상은 소음같은 음악과 함께 비계층적인 구조를 추구하였다. 95년 세계 패션계는 실버나 네온 등의 색상과 플라스틱, 비닐, 빛의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신소재 등의 사용으로 젊은층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사이버 펑크문화가 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메탈릭 직물 소재의 블라우스, A라인의 비닐 스커트, 피부에 밀착되는 메탈릭 탑, 크롬으로 도금된 바디스와 핫팬츠 등의 아이템과 약세사리가 다양하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중 파코라반, 쿠레주 등은 하이테크와 접목된 우주적 이미지와 소재 사용에 있어서의 실험적인 시도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 V. 결 론

이상에서 이 연구는 20세기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속에서 스트리트 패션이 시대정신과 상황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각각의 문화에 영향받은 스타일과 현재의 유행현상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즉 40년대 재즈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흑인계 미국인들이 억제되었던 욕망의 분출구로써 Zooties, 재즈의 부드러운 음으로 구성된 Hipsters, 50년대 cool한 재즈로 최소화를 추구한 Modernists, 70년대 에로틱한 성적욕구를 나타내는 Punk, 80년대 뉴욕 빈민가의 스트리트 스타일인 B-boys와 90년대의 Acid Jazz는 재즈의 절충주의에서 발생한 음악적 형식의 전통을 합친 패션이다.

또 다른 유행현상으로 4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전원 생활을 꿈꾸는 Western style, 50년대의 사회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방종한 생활로 해방감을 얻으려 했던 Beat, 60년대 팝아트와 옴아트의 영향으로 나타난 Psychedelic, 히피에 영향을 받은 90년대의 Grunge Look은 엘리트 패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패션이었다.

그리고 40년대 서인도 제도를 중심으로 전형적인 섬 유색상을 나타낸 Caribbean스타일, 60년대 자마이카의 화려함과 난해함을 나타낸 Rude boys와 아프리카 고대문명으로 돌아가려는 Rastafarians, 70년대 인종간의 화합을 시도한 Two-tone에 영향받은 90년대 Jamaica Look은 특유한 밝은 색상과 아플리케, 독특

한 머리 스타일 등으로 나타나 하이패션에 도입된 레게 패션이다.

50년대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을 추구한 Surfers, 70년대 포장된 도로 위에서 스피드를 즐기는 Skaters, 80년대 젊은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Casuals에 영향받은 90년대 Casual 룩은 현대 사회의 다양화와 생활의 긴박함 속에서 여유 있는 생활과 스포츠를 추구함으로 활동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패션이다.

또한 전후 사회로의 적응이 힘들었던 Bikers, 50년대 가죽 차킷의 폭주족인 Coffee bar cowboys, 60년대 반항적인 아웃사이더로 집단 독자성을 창조한 Rockers와 롤링 스톤을 모방한 Greasers, 80년대 공격적인 패션으로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반발한 Punks에 영향받은 90년대 Cyberpunk는 첨단 과학 시대의 컴퓨터 세대로 불길한 예감이 드는 메탈릭 의상은 전자음악과 함께 비계층적인 구조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복잡한 패션 현상을 이해하는데 제2차 대전 후부터 1980년대의 스트리트 스타일이 현재의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Acid Jazz, Grunge Look, Jamaica Look, Casual Look, Cyberpunk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집약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1. 유재원 역, 「제3의 물결」, 1985, p. 39.
2. Richard Martin & Harold Koda, The Historical, New York:Rizzoli, 1989, p. 7.
3. Jean A. Hamilton, Dress as a Cultural Subsystem; A Unifying Metatheory for Clothing & Textile, Clothing & Textile Research Journal, Vol.6 No.1 1987, pp. 1-3.
4. Idid.
5. 김민자, 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의 상징성에 대하여, 한국의류학회지, Vol. 11, No. 2, 1987, pp. 69-89.
6. 김민자, 1960년대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Vol. 10, No. 2, 1986, pp. 11-59.
7.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p. 48-96.
8. 서유리, America Hippie와 그 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9 No. 2 1995, p. 280.
9. 나채희, New Wave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p. 48-96.
10. 서유리, op. cit.
11. John O'Neil, The Poverty of Postmodernism, London and New York:Routledge, 1995, pp. 2-5.
12. Irwin Unger & Debi Unger, Twentieth-century America, New York:St. Martin's press, 1990, pp. 339-40.
13. Speaking on 'Reportage', BBC, 2. 26, 1994.
14. Mick Farren, The Black Leather Jacket, London, 1985, p. 38.
15. In particular, Herb Caen writing in the San Francisco Chronicle in 1957, the 'ink' alluding to the 'Sputnik' satellite, thereby identifying the Beats with communism.
16. Richard Williams & Miles Davis, The Man in the Green Shirt, London, 1993.
17. 조규화 역「20세기 양식」, 수확사, 1993, pp. 182-3.
18. Jonny Stuart, Rockers!, London, 1987, pp.17-8.
19. 서동진, 「젊음의 반란」, 1995, p. 89.
20. Colin MacInnes, Absolute Beginners, London, 1992, p. 62.
21. Simon Fieth, Sound Effects: Youth, Leisure and the Politics of Rock and Roll, London, 1988, p. 220.
22. 조규화 역, op. cit., p. 198.
23.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5, p. 13.
24. Jonny Stuart, op.cit.
25. Mike Brake, Youth Culture, London:Routledge & Kegan Paul, 1985, pp. 77-80.
26. 김민자, op.cit., p. 76.
27. Tom Wolfe, Funfy Chic, in Mauve Gloves & Madmen, Clutter & Vine, New York, 1977, p. 188.
28. 최광복 역, 「여성해방과 성의 혁명」, 서울:일월서각, 1983, p. 162.
29. 장미선, 록큰롤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4, p. 119.
30. Iain Chambers, Urban Rhythms: Pop Music and Popular Culture, London, 1985, p. 79.

31. Newsweek, 6. 20, 1977, pp. 80-1.
  32. Ted Polhemus, Street Style, London, 1995, p. 100.
  33. Kevin Sampson, The Ins and Outs of High Street Fashion, The Face 7. 39 1983, pp. 22-5.
  34. 섬유저널, 1995. 9, p.115.
  35. 패션 리사이클, Fashion Today, 1994. 2.
  36. 시사영어연구, Just Fix It, 1993. 2, p.12.
  37. Vogue, 1992. 12, p.256.
  38. Fashion Today, 1994.6, pp. 42-3.
- (접수일자 : 1997년 2월 10일)